

제26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 광주시장기 전국 남녀 중·고교 태권도 대회...14일부터 8일간 열전

# 전국 태권꿈나무, 빛고을서 '꿈'을 겨루다



제26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 광주시장기 전국 남녀 중·고교 태권도대회가 오는 14일부터 광주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대회 경기 모습. <광주시태권도협회 제공>

제26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 광주시장기 전국 남녀 중·고교 태권도대회가 오는 14-21일 광주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다.

대한태권도협회, 광주시, 5·18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광주시태권도협회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남고부 779명, 남중부 827명, 여고부 340명, 여중부 400명 등 역대 최다인 2천346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광주선수단은 남고부 27명, 남중부 37명, 여고부 14명, 여중부 22명 등 모두 100명이 참가한다.

대회는 핀급과 플라이급, 페더급 등 11체급(고등부 10체급, 중등부 11체급)으로 나눠 체급별 토너먼트로 치러지며, 전 종별 전자동 전자호구(KP&P) 및 전자머리보호대를 사용한다.

경기시간은 1분30초씩 3회전으로 열리며, 중간 휴식시간으로 30초가 주어진다. 3전 다승제 방식이 적용된다.

개인 체급별 1, 2, 3위에겐 메달과 상장이 수여되며, 각 부별 최다득점자(최우수선수)에게 상품권 50만원과 상장 및 트로피가 주어진다.

부별 종합우승팀 지도자에게

## '역대 최대' 2천346명 출전...11체급서 기량 겨뤄 민주·인권·평화 '5월 정신' 계승, 지역경제 활성화 '빛과 그림자-태권도의 힘' 주제 특별 공연 '눈길'

도 상품권 50만원과 상장, 트로피를 수여할 예정이다. 부별 단체우승팀 및 2, 3위 팀, 그리고 감투상과 장려상 등 단체 시상도 이뤄진다.

전국의 태권 꿈나무들이 광주에 모여 '민주', '인권', '평화'의 5·18 광주민중항쟁 정신을 계승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대회인 만큼 태권도 꿈나무 발굴은 물론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와 함께 지역 이미지 개선에도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광주시태권도협회는 이번 대회에 2천3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면서 내수 진작 등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가 35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과 정보제공을 통해 '5월정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계기를 만

들어나감은 물론, 광주와 호남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개최식 식후 행사로 조선대 태권도학과 학생 70여 명이 참가해 '빛과 그림자-태권도의 힘'이라는 주제로 '희망 광주' 공연을 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공연은 모두 4막으로, 1막 어둠의 시작, 2막 고통의 연속, 3막 극복의 길, 4막 희망의 빛 등을 주제로 학교폭력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 심각성을 전달하는 동시에 희망과 용기를 전하게 된다.

관객들에게 학교폭력이 미치는 영향과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학교폭력 예방과 극복에 대한 인식과 의지를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대회 광주지역 출전선수 가운데 유력한 우승 후보는 2023년 대한태권도협회장기 태권도대회에서 플라이급 1위를 차지한 김건웅(3년·상무중)과 2023년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밴텀급 1위에 오른 이창민(3년·상무중)이다.

또 올해 제주평화기대회에서 라이트급 1위를 차지한 최진영(3년·상무중)과 같은 대회 2위 및 2023년 세계카랫선수권대회(페바는)에서 미들급 2위를 차지한 김근우(3년·문성중)도 눈여겨볼 기대주다.

이영석 광주시태권도협회장은 "이번 대회는 1980년 5월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 평화를 위해 군사독재의 총칼에 맨몸으로 맞섰던 민주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그 뜻을 계승하기 위한 뜻깊은 대회이자 올해로 26회째 '광주정신'과 태권도를 결합해 개최하는 전국 규모 대회"라며 "8월 동안 열리는 태권도 대회를 통해 광주정신이 길길이 후손들에게 이어져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마음속 깊이 각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 배우 신정윤, KIA 승리기원 시구

오늘 SSG戰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10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홈경기에서 배우 신정윤을 초청, 승리기원 시구 이벤트를 개최한다.

KIA 타이거즈 열성팬인 신정윤 씨는 이날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시구자로 나서 KIA의 승리를 기원한다.

신정윤은 "난 태어난 순간부터 모태 타이거즈 팬이었다. 챔피언스 필드 직



배우 신정윤 <에이스팩토리 제공>

관도 자주 하며 언젠가는 시구를 하는 꿈을 꿨는데 꿈을 이루게 돼 크나큰 영광이다. 선수단 모두 다치지 않고 플레이하며 이날 경기에서 꼭 승리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흥철 기자



2024 연맹회장기 전국남녀중고농구대회 3연패를 달성한 수피아여중 선수단이 시상식 후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피아여중 제공>

# 수피아여중, 연맹회장기 3연패

'전승 우승'...올시즌 2관왕

광주 수피아여중 농구팀이 2024 연맹회장기 전국남녀중고농구대회에서 전승 우승을 차지했다.

수피아여중은 9일 경북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중부 결승에서 수원제일중을 87-61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수피아여중은 이번 대회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펼치며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또 지난 3월 제1회 춘계 전국남녀중고농구연맹전 우승에 이어 올시즌 2관왕에 올랐다.

수피아여중은 송의여중(74-28 승)과 청주여중(70-35 승), 인성여중(85-41 승)을 연파, 3승으로 조 1위를 차지하며 8강에 진출했다.

8강서 마산여중을 67-39, 준결승서 청송중을 90-36으로 물리치고 결승에

오른 수피아여중은 수원제일중을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26점 차 대승을 거뒀다.

가드 송지연(2년·26득점)과 포워드 임세운(3년·23득점), 가드 겸 포워드 김민희(3년·20점) 등 세 선수가 20점 이상의 득점포를 과시하며 승리를 이끌었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이근 감독은 리바운드상·어시스트상·수비상·최우수상(MVP)을 수상, 개인 4관왕을 차지했다.

이선영 수피아여중 코치는 "우리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신장이 작아 수비 훈련을 집중적으로 했고, 시합 때 연습한대로 잘 수행해 준 게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며 "대회 3연패와 시즌 2관왕에 만족하지 않고 전국소년체전을 비롯해 남은 대회에서도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 '번리 킬러' 손흥민, UCL '실낱 희망' 살려라

3경기 남은 5위 토트넘, 내일 오후 11시 '강등권' 번리와 대결

'번리 킬러'를 믿는다!

시즌 종료까지 3경기를 남기고 4연패의 수렁에 빠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이 2024-2025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출전을 향한 '실낱 희망' 살리기에 도전한다.

토트넘은 11일 오후 11시 19위 번리를 상대로 2023-2024 EPL 37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토트넘의 최근 상황은 말 그대로 최악이다.

공격은 물론 수비까지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최근 4연패를 당했다.

승점을 쌓지 못하면서 토트넘(승점 60·골 득실+11)의 순위는 5위로 내려앉았다.

1경기를 더 치른 4위 애스턴 빌라(승점 67·골 득실+20)와의 격차는 승점 7이고, 6위 뉴캐슬에는 승점 4차로 쏘고 있다.

이번 시즌 종료까지 3경기를 남긴 토트넘은 남은 경기에서 전승하고, 애스턴 빌라가 2연패를 당해야만 4위 자리를 뺏아낼 수 있다.

토트넘이 4위를 차지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

시즌 UCL 티켓 때문이다.

EPL 1-4위 팀은 2024-2025 UCL 본선 무대에 나선다. 5위 팀은 Uefa 유로파리그 본선 진출권을 받고, 6위 팀은 Uefa 유로파 콘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출전권을 확보한다.

토트넘으로선 이번 37라운드 번리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4위 탈환의 실낱같은 희망을 살려 나가는 동시에 5위 수성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번리에 패하면 4위의 꿈은 사라진다.



토트넘은 지난해 9월 4라운드에서 번리를 만나 5-2대승을 거둔 바 있다.

당시 번리전 승리의 주역은 '손세이셔널' 손흥민이었다.

손흥민은 3라운드까지 골 침묵을 지키다 번리를 상대로 헤트릭을 달성하며 이름을 제대로 했다. 이에 앞서 2019년 12월 열린 2019-2020 EPL 16라운드 번리전에서는 약 70m를 질주해 '원더골'을 터트린 바 있어 '번리 킬러'로 자리매김했다.

이 때문에 토트넘의 승리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번리를 만나게 된 손흥민의 발끝에 팬들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

비록 팀은 4연패의 수렁에 빠졌지만 최근 손흥민의 결정력은 나쁘지 않은 상태다.

손흥민은 리버풀과 36라운드(2-4 패)에서 리그 17호 골(통산 120호골)을 터트리며 득점 랭킹 7위에 올랐다.

손흥민이 번리전에서 멀티골을 터트리면 EPL 역대 득점 순위 공동 20위인 라힘 스틸링(첼시)과 로베르 루카쿠(이 상 121골)를 뛰어넘을 수 있다. /연합뉴스



대회를 하루 앞둔 9일 영암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에서 훈련 중인 제초 선수들. <전남도체육회 제공>

# 전국소년체전 사전경기 '스타트'

오늘부터 기계체조 종목 시작 사실상 열전 돌입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꿈나무들의 축제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10일부터 기계체조 종목 경기를 시작으로 사실상 열전에 돌입한다.

전남도체육회는 9일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사전경기인 기계체조 경기가 10-12일 영암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제53회 전국소년체전 기계체

조에는 전국 15개 시도 200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전남선수단은 초등부 강인구 감독과 박광표 코치, 김서완, 김형주, 배연우, 오지훈(이상 영광중앙초)과 중등부 정도현 감독과 이광클 코치, 김민형, 오재진, 임세빈, 정성진, 최석희(이상 전남체육중)가 메달에 도전한다.

한편, 오는 25일 개막에 앞서 사전경기로 기계체조 경기가 열리며, 축구, 하키, 야구, 테니스, 농구, 핸드볼은 경기일수 조정으로 인해 개막 1-2일 전부터 예선전을 치른다. /박희중 기자